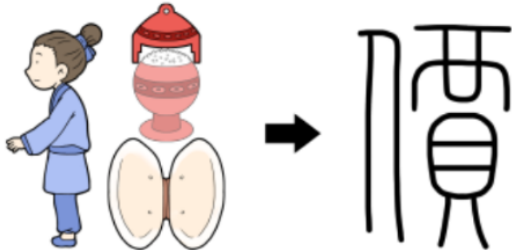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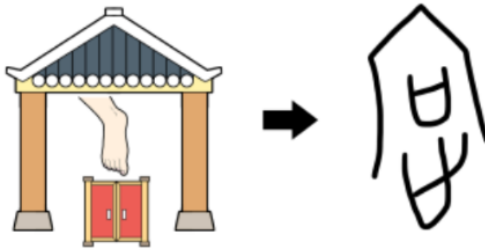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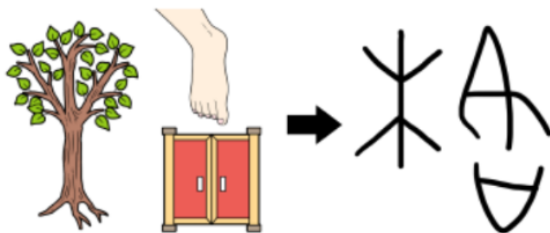
























5(2) - 1	<div>회의문자 ①</div> <div></div>				
價	<p>價자는 '값'이나 '가격'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價자는 人(사람 인)자와 賈(값 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사실 이전에는 賈(값 가)자가 '가격'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賈자는 재화(貝)를 펼쳐놓고(西) 물건을 판다는 데서 '장사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후에 소전에서는 여기에 人자를 더하게 되어 '가격이란 사람과 사람 간의 거래'란 뜻을 표현하게 되었다.</p>				
값 가					
	<table><tr><td></td><td></td></tr><tr><td>소전</td><td>해서</td></tr></table>			소전	해서
					
소전	해서				

5(2) - 2	<div>회의문자 ①</div> <div></div>						
客	<p>客자는 '손님'이나 '나그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客자는 宀(집 면)자와 各(각각 각)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各자는 입구로 발이 들어오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입구로 발이 들어오는 모습을 그린 各자에 宀자가 결합한 客자는 '손님이 방문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손님이란 우리 집에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客자에는 '손님'이라는 뜻 외에도 '나그네'나 '지나간 때', '의탁하다'라는 뜻이 파생되어 있다.</p>						
손 객							
	<table><tr><td></td><td></td><td></td></tr><tr><td>금문</td><td>소전</td><td>해서</td></tr></table>				금문	소전	해서
							
금문	소전	해서					

5(2) - 3	<div>형성문자 ①</div> <div></div>								
格	<p>格자는 '격식'이나 '바로잡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格자는 木(나무 목)자와 各(각각 각)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各자는 입구로 발이 들어오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각→격'으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格자는 본래 가지치기 한 나무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러나 나무의 가지를 다듬어 모양을 바로잡는다는 뜻이 확대되면서 후에 '바로잡다'나 '고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格자는 가지치기한 나무처럼 잘 다듬어진 사람의 인성이나 인격을 뜻하기도 한다.</p>								
격식 격	<table><tr><td></td><td></td><td></td></tr><tr><td>금문</td><td>소전</td><td>해서</td></tr></table>				금문	소전	해서		
									
금문	소전	해서							
5(2) - 4	<div>회의문자 ①</div> <div></div>								
見	<p>見자는 '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見자는 目(눈 목)자와 儿(어린사람 인)자가 결합한 것이다. 見자의 갑골문을 보면 人(사람 인)자에 큰 눈이 𠂆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사물을 보는 눈을 강조해 그린 것으로 '보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다만 한자에서는 目자가 주로 '눈'과 관련된 뜻으로 쓰이고 있다면 見자는 '보다'와 같이 보는 행위에 주로 쓰이고 있으니 차이점을 알아두는 것도 좋다. 또 예전에는 見자가 現(나타날 현)자 대신 쓰인 적이 있기에 '나타나다'나 '보이다'와 같은 의미도 있다. 이때는 '현'으로 발음한다. 다만 見자의 기본 의미는 '보다'이기 때문에 부수로 쓰일 때는 '보는 것'이나 '보이는 것'과 관련된 뜻을 전달한다.</p>								
볼 견/뵈을 현	<table><tr><td></td><td></td><td></td><td></td></tr><tr><td>갑골문</td><td>금문</td><td>소전</td><td>해서</td></tr></table>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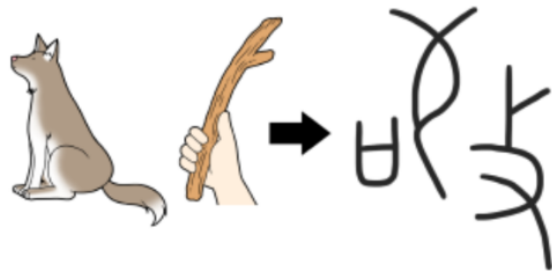
<div>5(2)</div> <div>-</div> <div>5</div>	<div>회의문자 ①</div> <div>  </div>				
<div>結</div>	<div>結자는 '맺다'나 '모으다', '묶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結자는 糸(가는 실 사)자와 吉(길할 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吉자는 신전에 꽃아두던 위목(位目)을 그린 것이다. 結자는 이렇게 상하가 결합하는 형태인 吉자에 糸자를 결합한 것으로 '(실을) 잇는다'라는 뜻을 표현했다. 누에고치에서 뽑은 실은 길이가 한정돼 있다. 그래서 비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을 이어주는 과정이 필요했다. 結자는 그러한 의미를 표현한 글자로 吉(결합하다)에 糸(실)자를 합해 '실이 이어지다'를 뜻하다가 후에 '맺다'나 '모으다', '묶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div>				
<div>맺을 결</div>	<table border="1"> <tr> <td data-bbox="252 775 823 981">  </td><td data-bbox="823 775 1394 981">  </td></tr> <tr> <td data-bbox="252 981 823 1059">소전</td><td data-bbox="823 981 1394 1059">해서</td></tr> </table>			소전	해서
					
소전	해서				
<div>5(2)</div> <div>-</div> <div>6</div>	<div>회의문자 ①</div> <div>  </div>				
<div>決</div>	<div>決자는 '결단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決자는 水(물 수)자와 夬(터놓을 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夬자는 활시위를 놓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터놓다'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터놓다'라는 뜻을 가진 夬자에 水자가 더해진 決자는 '물을 터놓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고대 중국의 문명은 황하를 중심으로 시작됐지만, 황하는 이름 그대로 흙이 가득한 강물이다. 그래서 2천 년 동안 무려 1,500회 이상 제방이 무너졌으며, 물줄기만 해도 26번이나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의 역대 왕조들은 물길을 돌리는 치수(治水) 사업에 사활을 걸었지만, 홍수로 인한 범람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때가 많았다. 그래서 때로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상류의 독을 끊어 터놓기도 했다.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결단을 내려야 했던 것이다. '물길을 터놓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決자가 '결단하다'나 '결정하다'라는 뜻을 갖게 된 이유이다.</div>				
<div>결단할 권</div>	<table border="1"> <tr> <td data-bbox="244 1881 826 2092">  </td><td data-bbox="826 1881 1406 2092">  </td></tr> <tr> <td data-bbox="244 2092 826 2170">소전</td><td data-bbox="826 2092 1406 2170">해서</td></tr> </table>			소전	해서
					
소전	해서				

5(2)

-

7




회의문자 ⓘ



敬

공경 경

敬자는 '공경하다'나 '정중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敬자는 苟(진실로 구)자와 攴(질 북)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苟자는 귀를 쫓긋 세우고 있는 개를 그린 것으로 '진실로'나 '참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진실되다'라는 뜻을 가진 苟자에 攴자가 결합한 敬자는 '진실하도록 하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敬자에 쓰인 攴자는 예의를 갖추도록 만든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강제성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고대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글자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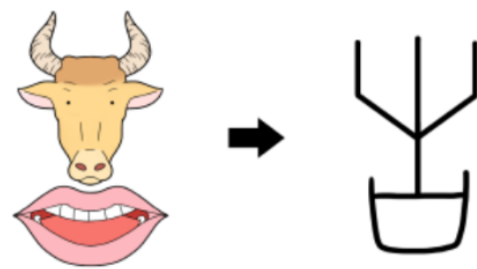
		
금문	소전	해서

5(2)

-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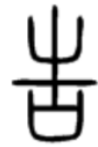

회의문자 ⓘ



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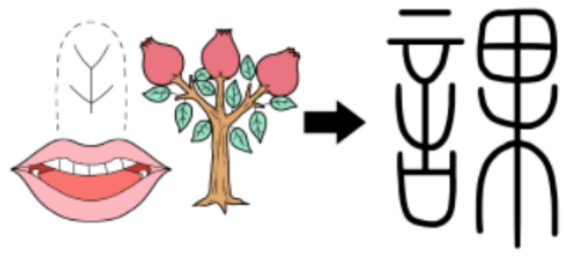
고할 고

告자는 '알리다'나 '고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告자는 牛(소 우)자와 口(입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告자는 고대의 제사풍습과 관련된 글자이다. 고대에는 짐승을 제물로 바쳐 제사를 지내곤 했는데, 告자는 신에게 제사를 지냄을 알린다는 의미에서 '알리다'나 '고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제사에는 주로 양이나 소가 제물로 쓰였다. 그러니 告자에 쓰인 牛자는 제물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사실 우리가 먹는 설렁탕도 신에게 제물로 바쳤던 소를 꼭 고아 나눠 먹었던 것에서 유래한 음식이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 ①

5(2)  
-  
9



課

공부할/  
과정/  
매길/  
과

課자는 '공부하다'나 '과정'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課자는 言(말씀 언)자와 果(열매 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果자는 나무 위에 열매가 맺혀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열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공부는 자신이 목표로 하는 성과(成果)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을 말한다. 課자는 그러한 의미를 담은 글자로 '글공부(言)를 열심히 하여 결실(果)을 맺는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즉 課자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성과를 얻어 낼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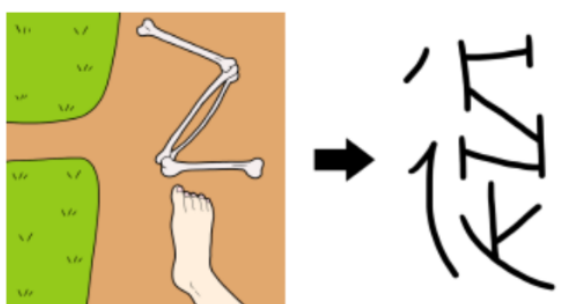
소전

課

해서

형성문자 ①

5(2)  
-  
10



過

지날 과

過자는 '지나다'나 '경과하다', '지나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過자는 辵(쉬엄쉬엄 갈 착)자와 𠂔(가를 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𠂔자는 '뼈'를 뜻하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過자는 어떠한 상황이나 상태가 지나갔음을 뜻하기 때문에 길을 걷는 모습을 그린 辵자가 '지나가다'라는 뜻을 전달하고 있다. 다만 지금의 過자는 '초과하다'나 '넘치다'와 같이 한계를 넘어선다는 뜻이 확대되어 있다.

過

금문

過

소전

過

해서